

시 정 질 문 서

【이영우 의원】

1. 소신여객 춘의동 차고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춘의동 소재 소신여객 차고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대형차량(버스)의 출입으로 인하여 원미로의 교통 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좁은 도로 상을 고려할 때 대형버스의 차고지 출입과 관련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특히 차고지(특수시설)라는 선입감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차고지를 시 외곽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본 차고지 부지에 복지회관의 신축과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편의 공용 이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2.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 시청 지하주차장을 지하로 연결하고 시청 지하주차장을 민원편의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기존 시청 지상주차장은 차가 없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 시청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 및 방안은?

3. 원미산 진달래동산 공영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원미산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국궁장과 활박물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원거리 위치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음.

진달래꽃축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의 개최시 매번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공용화장실을 설치 철저한 관리와 청결상태의 유지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은?

4. 원미구 청사 운영(부서 등 배치)과 관련하여

원미구청은 주민들에게 심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장을 헐고 조경 및 분수대,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청사를 완전히 개방하였는데 현재 당직실이 외부에 있어 청사 보물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원미구 청사 내 구금고인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 통행이 많은 정문 쪽에 위치하여야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구금고의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교통과를 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하여 배치한 이유와 별관에 위치한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팀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창고 수준이며, 주차장부터 시작하여 청사 뒤편과 좌측에 위치한 건축물들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원미구 청소년공부방과 민들레교실,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등 주민에게 취미 및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던 시책을 폐지하게 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